광양 덕례초, 온라인 개학 위해 TF팀 꾸려 대응

민주적 학교 문화 · 협력으로 온라인 개학 준비
시범 운영 결과 공유 · 구글 클래스룸 활용 결정

광양덕례초등학교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와 교사들의 협력으로 온라인 개학을 민주적으로 해결해나갔다.

지난달 31일 교육부에서 최초로 신학기 온라인 개학을 발표했다. 이에 광양덕례초등학교(이하 본교)에서는 처음 접하는 온라인 개학을 더욱 슬기롭게 준비하기 위해 '온라인 개학 준비 TF팀(이하 TF팀)'을 꾸렸다.

TF팀은 교무부장을 비롯한 연구부장, 정보담당교사와 고학년 대표(6학년 1반)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되었다. TF팀은 한 차례 사전 모임을 갖고 4월 2일 내부 계획을 수립하여 활동하기 시작했다. TF팀의 목적은 여러 교육 플랫폼 중 본교의 교육공동체 및 교육실태에 맞는 플랫폼을 찾는 것이었다. TF팀은 자체 연구를 통해 본교에 적합한 플랫폼을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교원회의를 통해 본교 온라인 개학 플랫폼을 선정하기로 하였다.

TF팀은 대표적인 플랫폼(ZOOM, 전남e학습터, 구글클래스룸, EBS온라인 클래스)을 기본안으로 두고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각 팀원별로 모의수업할 하나의 플랫폼을 연구하고 그 외의 플랫폼을 함께 다루어보며 플랫폼의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7일은 TF팀 내 모의수업을 실시하고, 본교에 맞는 플랫폼 선정을 위한 다섯 가지 기준(교사 활용 용이성, 학생 접근성, 학생 출석 및 평가, 과제 및 다양한 자료 사용의 범용성, 교사 협업 가능성, 교육내용의 질)을 세워 평가표를 만들고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최종적으로 TF팀에서 추천할 플랫폼을 선정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하였다. 그날 오후 교원회의를 개최하여 TF팀 운영 결과를 발표하고 모의수업을 실시한 후, 협의를 통해 구글클래스룸을 본교 온라인 개학 플랫폼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지난 8일에는 TF팀에서 제작한 연수 자료로 교사 자율연수를 실시하고 그 다음 날인 9일은 학년별 구글클래스룸 개설을 위한 학년별 1차 연수를 1시간 이상씩 실시하였다. TF팀은 원격수업지원단으로 성격을 달리하여 온라인 개학을 위한 컨텐츠 제작(디지털 교과서 활용, 온라인 수업자료 공유 등)을 도왔고 4월 14일 온라인 개학을 위한 본교 자체 시범 운영의 날(이하 시범 운영의 날)을 실시하고 학년군 교사와 TF팀이 함께 운영 결과를 공유하고, 구글클래스룸 활용에 대한 또 한번에 연수 시간을 가졌다.

본교 시범 운영의 날에 참여한 6학년 학생은 신기하고 재미있었다고 소감을 남겼으며 수업을 준비한 교사들은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우는 기회가 되었다고 전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온라인 개학을 준비하는 열정과 시간을 학생과 함께 걷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동부취재본부 정선웅 기자

신안교육청, 2020. 신안마을학교 컨설팅 실시

신안교육청에서는 신안 관내 마을학교 임자만났네 외 5곳을 대상으로 지난 14일 부터 총 12회에 걸친 학교-마을학교 네트워크 활동 및 컨설팅을 시작했다.

최근 열린 임자만났네 마을학교 컨설팅에서 원광대 김대호 교수를 포함한 8명의 마을학교 지원단과, 마을학교 활동가 6명, 임자권역 초·중·고 학교장 3명이 참여하여, 코로나19대응 마을학교 운영 방안을 협의하였다. 또한 방과후 또는 주말에 놀이, 쉼, 돌봄 중심의 활동과 학교와 마을학교가 함께하는 마을연계 교육과정 운영, 이를 위한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에 대해 협의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번 네트워크 활동은 학교-마을학교, 마을학교 간 정보를 공유하여 마을학교 간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가 되었다.

컨설팅에 참석한 정영호 컨설턴트는 "마을학교는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놀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며, 아이들 스스로 노는 단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임자만났네마을학교 정창일 대표는 "마을학교 활동가 및 컨설턴트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어 도움이 되었으며, 마을공동체의 주체로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흥 교육장은 "온마을이 함께하여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학교와 마을,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업하고 노력하자"고 전했다.

신안=정승호 기자

보성교육청, 세월호 6주기 추모의 나무에 노란 리본 달아

코로나19로 각자 방법으로 추모

보성교육청은 지난 16일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을 기리고 기억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 한 자리에 모일 수는 없었지만 각자의 방법으로 마음을 나누었다.

이날 추모 행사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다수가 모이는 것을 지양하고 현수막 게시, 구내방송, 카카오톡 등의 소셜 미디어 활용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반영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보성교육청에서는 교육장의 추도사를 시작으로 전 직원이 추모의 나무에 메시지를 적은 노란 리본을 달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책임과 의지를 되새겼고, 보성자치교사 모임, 보성학생연합회에서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등을 통해 '온라인 노란 리본달기' 캠페인을 실천하며 마음을 더했다.

이 외에도 보성 각급 학교에서는 플래시몹, 추모 영상제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모의 뜻을 표현하며 보성교육공동체가 모두 한마음이 되어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했다.

백남근 교육장은 "지나가는 시간과 다르게 아이들의 모습은 마음에 그대로 남아있다. 별이 된 아이들을 기억하며 항상 마음에 새기겠다."며 "학생안전과 생활지도에 만전을 다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보성=김덕순 기자

전남교육청, 교육활동 중 사고로부터 교직원 보호

전남교육청은 교직원들이 교육활동 및 업무에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작년에 이어 도내 전체 교직원(국·공·사립)을 대상으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최근 밝혔다.

교직원 배상책임보험은 교육활동 및 업무수행 중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률상 책임을 배상해 주는 제도로, 작년에는 민사상 배상책임에 한해 운영했으나 이번에는 아동학대 등으로 형사피소된 경우의 '형사방어비용' 보장을 추가했다.

올해 새로 도입한 형사방어비용은 교직원이 피의자가 됐을 때 변호사 선임비용을 의미하며, 유죄 판결 및 벌과금의 경우에는 담보되지 않는다.

보상한도는 민사의 경우 1사고당 2억 원, 형사의 경우 1사건 당 5,000만 원까지이며, 교육청 연간 총 한도는 12억 원이다.

보장금액에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피보험자가 지급한 변호사 비용 등이 포함된다.

허성은 기자

여수 진남초, 학습공백 최소화 위한 온라인 개학 준비

여수진남초등학교는 이달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온라인 개학 준비를 위한 담임교사와 만남의 날과 '애들아, 과일먹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온라인 개학 실시에 따라 사전에 스마트 기기 대여 및 원격 수업 방법 교육을 위해 4월 13일과 14일에 담임교사와의 만남의 날을 운영하였고, 그 시간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신선한 컵과일을 제공하는 '애들아! 과일먹자'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이다. 물론 학생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교실에 들어가기 전 발열체크, 손소독을 철저히 했으며, 1학급당 10명씩 모이도록 시간을 조정하고, 개인별 간격 2M 이상을 확보하여 앉았다.

그동안 담임교사와 온라인으로만 소통하였던 학생들은 선생님과 처음으로 만나 인사를 하였고, 교실과 컴퓨터실에서 원격수업 방법을 교육받았다.

'애들아! 과일먹자' 프로그램은 2020년 1년 동안 한 달에 1번 학생들이 신선한 제철 과일을 먹을 수 있도록 후원받는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진행되지 못하다가 온라인 개학 준비기간에 담임교사와 만남의 날이 운영되어 진행할 수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과일이 담긴 컵에 학생들이 알기 쉽도록 영양 정보를 부착하여 과일을 먹으면서 영양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참여 학생 중 6학년 차현우 학생은 "평상시에 여러 가지 과일을 먹어보지 못하는데 과일을 먹으니 왠지 건강해질 것 같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오랜만에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서 좋았다"라고 말했다.

학교관계자는 "과일을 후원해 주신 ㈜ 더 디케이 푸드 기관에 감사하다"고 전하였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